'현우경' 이야기 (3)

데바닷타의 욕심

황금빛 짐승이 가죽을 보시하자 꽃비가…

부처님이 라자그리하 그리드라쿠타산에 계실 때 몸에 병이 들었다. 의사 지바카는 병든 부처님을 위해 약을 지어 공양했다. 그 모습을 본 데바닷타는 질투심에 부처님과 똑같은 약을 지어 달라고 지바카에게 부탁했다.

지바카는 데바닷타와 부처님의 몸이 달라 같은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데바닷타는 말을 듣지 않았다. 데바닷타는 부처님과 똑같은 약을 먹고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 했다. 이 모습을 본 부처님은 데바닷타를 가엾게 여겨 머리를 어루만져 주셨다. 그러자 데바닷타의 병이 씻은 듯 치유됐다.

병이 나은 데바닷타는 오히려 부처님에게 "사람들이 자신의 법을 알아주지 않으니, 이제는 의술을 배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구나"라고 말했다. 이 말을 옆에서 들은 아난다는 몹시 화가나 부처님께 말했다.

"데바닷타는 은혜도 모르는 자입니다. 항상 부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바닷타의 병을 왜 고쳐주셨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온 데바닷타와의 인연에 대해 말했다.

오랜 옛날 잠부드비파 바라나라 성에는 브라흐마닷타라는 왕이 살고 있었다. 브라흐마닷타는 포악하고 욕심 많은 왕이었다. 어느 날 그는 꿈에서 온 몸에 금빛이 나는 짐승을 보았다. 왕은 꿈에서 깨고도 그 짐승을 잊을 수 없었다. 결국 왕은 사냥꾼들을 불러 모았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온 몸에서 금빛이 나는 짐승을 보았다. 내가 꿈에서 본 것과 같은 짐승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나라를 샅샅이 뒤져 그 짐승을 잡아오너라. 그 짐승을 잡아오는 자에게는 후한 상을 주겠지만 짐승을 잡지 못할 경우에는 너희는 물론 가족들의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삽화 · 강병호

왕의 명령을 받은 사냥꾼들은 걱정이 앞섰다. 태어나서 그런 짐승을 본 적도 없거니와, 숲에는 무서운 짐승들이 우글대고 있어 자신의 목숨조차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사냥꾼들은 자신들 대신 그 짐승을 찾아줄 또 다른 이를 찾아 일을 부탁하기로 했다. 사냥꾼들이 그 남자에게 말했다.

"숲에서 왕이 말한 짐승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대가는 반드시 치르겠소."

남자는 결국 채비를 마친 후 험한 숲속으로 들어갔다. 며칠 동안 끼니도 거른 채 숲을 헤매던 남자는 결국 기력이 소진해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 숲에서 한 짐승이 나타났다. 그 짐승은 사냥꾼을 데리고 물가로 가 물을 먹게 하고, 과일을 따서 먹였다. 기운을 차린 남자는 자신 앞에 있는 짐승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짐승의 모습은 왕이 말한 대로 온 몸에서 금빛이 났다.

사냥꾼은 고민에 빠졌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짐승을 헤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왕에게 짐승을 데려가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냥꾼들과 그들 가족의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이었다.

짐승이 사냥꾼에게 물었다.

"무슨 걱정이 있어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으십니까?"

사냥꾼은 결국 짐승에게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 말은 들은 짐승은 사냥꾼에게 흔쾌히 자신의 가죽을 가져가라고 말했다.

"저는 이 세상에 복을 짓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미 전생에 여러 번 목숨을 버렸지만,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려 제 목숨을 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누군가의 목숨을 꼭 구하고 싶습니다."

사냥꾼은 짐승의 마음에 크게 감동해 눈물을 흘렸다. 짐승이 사냥꾼에게 자신의 가죽을 보시하자 갑자기 하늘이 진동하면서 꽃비가 내렸다. 짐승은 사냥꾼에게 가죽을 보시하고 자신의 살은 8만 마리의 개미와 파리들에게 보시했다.

사냥꾼은 짐승의 가죽을 왕에게 가져갔다. 왕은 가죽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말했다.

"그때 욕심 많던 브라흐마닷타 왕은 지금의 데바닷타이고, 짐승은 나이다. 또한 그때의 8만 마리 벌레들은 지금 하늘사람들이 됐다. 데바닷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나를 죽이고 괴롭혀 왔다. 때문에 이생에서도 언제나 나를 헤치려고 드는 것이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 안락한 곳에 편히 살게 하고플 뿐이다."

이 말을 들은 아난다와 제자들은 크게 감동해 더욱 열심히 수행을 했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법성게 불자 건강카드 12

파동에너지발산용 칩 내장

만고의 진리인 법성게에 '파동에너지발산용 칩'을 장착하여 뇌파균형에너지가 작용되어 몸에 지니기만 하면 신체가 바르게 되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점차 건강해지며 남녀노소, 체질, 모든 사람에 부작용 없이 도움되는 획기적 기능카드입니다.

'법성게 불자 건강카드'는 몸에 지니고 12걸음을 걷는 순간, 바로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 법성게공덕 + 건강기능 + 전자파유해성중화기능 + 수맥파유해중화기능
◈ 사용법 : 카드비닐을 개봉해야 에너지가 발산되며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봉후 카드 하단에 개봉날짜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파동에너지발산용 칩'은 남녀공용으로 지갑,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만 해도 뇌기능의 핵심인 뇌파의 균형작용활성화로 인체의 좌우 균형을 잡아 소화기, 비뇨기, 순환기, 호흡기 등의 생체기능을 향상하여 불편했던 건강이 점차 개선됩니다.

(개발자 : 파동에너지발산용 칩 연구개발원 원장 김종석)
• 국내 실용신안등록 2건
• 미국 의료기기등록 (제370432010호)

방문하시는 신도분들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50장이상 구입 시 사찰명과 스님 법명 인쇄하여 드립니다.

총판 : 한국불교신도총연맹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전화 : 010-3334-5121. 010-8833-1619. 070-8116-5121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여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 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본제품은 10년간 사용하여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국제품질 시스템 ISO 9002 규격에 따라 제조되었습니다 (인증번호 AC-01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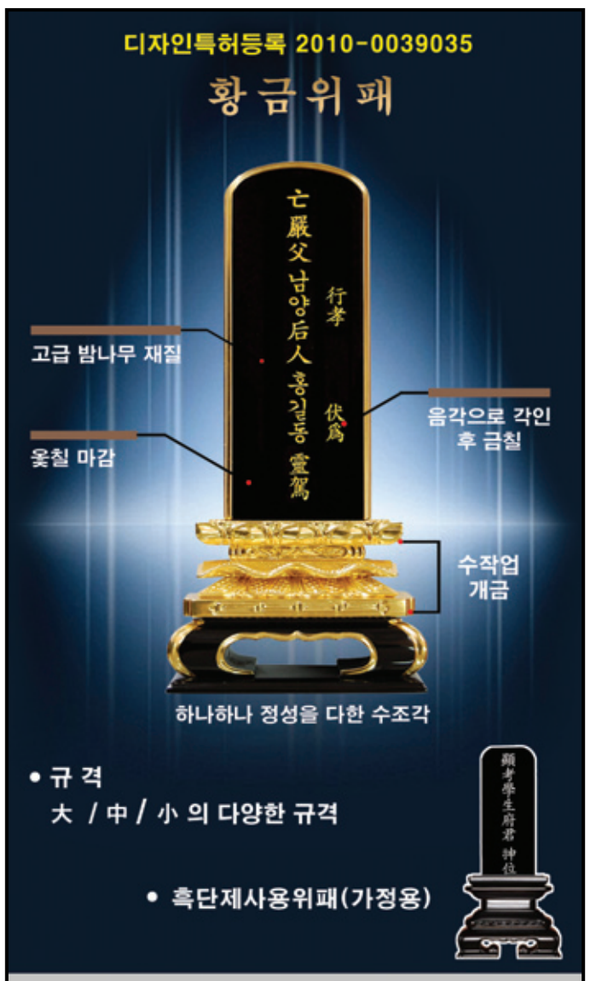
용 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용

영일상사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 규 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단제사용위패(가정용)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4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